

고온 극복 혁신형 스마트 온실 준공

채소·과수·화훼 실증 연구로 안정적인 생산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급격하게 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 '고온 극복 혁신형 스마트 온실'을 짓고 지난 26일 준공식을 열었다.

'고온 극복 혁신형 스마트 온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시설 작물의 폭염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민간에서 개발한 고온 극복 기술의 현장 보급 가능성과 채소·과수·화훼 등 적용가능 작물 등을 실증하기 위해 지은 시설이다. 일반적인 광폭 비닐보다 높이고 넓이를 확대하고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 여름철 내부 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며, 작물 지하부의 정밀한 환경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양액시스템을 설계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이 온실에 7월 말 1차적으로 딸기와 장미를 심어 생육과 생산, 품질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준공식에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훌륭한 기술이 있다면 민간의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고온 극복 혁신형 스마트 온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틀이 되도록 기술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급격하게 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 '고온 극복 혁신형 스마트 온실'을 짓고 지난 26일 준공식을 열었다. /김윤상기자

전북은행,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지난 26일 '대고객 감사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고 경품 증정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JB가맹점통장, JB주거래통장 신규 및 전환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667명을 선정했다. 이 중 17명에게 추첨 순위에 따라 안마의사(1명), 스타일러(2명), 건조기(4명), 영업용청소기(10명)를 나머지 650명에게는 기프트 상품권(최소금액 5만원 이상)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 창립 50주년을 맞아 도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이벤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창립 50주년 기념 'Big Event' 릴리세이드를 잡아라'를 진행하고 있으며, 응모조건은 JB주거래통장으로 급여 및 연금을 받는 신규고객, JB가맹점통장으로 가맹점 매출대금을 받는 신규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과 익산군산축협이 지난 26일 익산군산축협에서 한우 번식우 번식성적 향상을 위한 집합컨설팅을 실시했다.

전북농협, 한우 번식우 향상 위한 기술 교육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과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심재집)은 지난 26일 익산군산축협에서 조합원 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번식우 번식성적 향상을 위한 집합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한우 번식우 사양관리 기술 교육·컨설팅으로 우량 암소 혈통관리를 위한 선발, 계획교배 및 태태기준, 분만 후 어미 소 및 송아지 관리, 번식우의 분만 전·

후 질병관리, 번식우의 수명 연장 등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번식우 사양관리 기술교육을 통해 우량번식농가 육성을 위해 마련했다.

더불어 한우 혈통등록의 필요성 및 좋은 소 구별 방법과 2019년 12월 1일부터 바뀌는 쇠고기 등급제 개정에 따른 송아지 및 번식우 최신사양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강의와 농가 질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참석 농가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컨설팅에 참석한 농가들은 "쇠고기 등급제가 12월 1일부터 바뀌는데 이에 대한 송아지 및 번식우 사양관리 등 기술적으로 개선할 점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이번 교육·컨설팅을 통해 우량 송아지 생산과 번식성적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축산현장에서 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컨설팅과 신기술 보급 등 축산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비대면 외화예금 신규가입 이벤트 진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외화예금 가입채널 확대에 따른 'JB 비대면 외화예금 신규가입 이벤트'를 오늘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본 이벤트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미국달러(USD) 외화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 외화정기

예금은 90%, 외화보통예금은 80%의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비대면 채널(뉴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웹)을 통해 가입한 일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금액은 건당 최소 미화 1천불이상 최대 미화 30만불까지이다.

비대면 채널 확대를 통해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던 외화보통예금을 뉴스마트뱅킹, 모바일웹 등을 통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북은행 거래가 없는 고객도 모바일웹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게 외화예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채널을 확대했다"며 "많은

분들이 비대면 채널로 외화예금을 가입하시고 환율우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가입고객 선착순 200명에게 커피 모바일쿠폰을 증정하는 사은 행사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bank.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휴가철 든든한 보장책으로 안성맞춤!

NH농협생명, '온라인생활레저보험' 출시
재해수술자금·응급실내원진료비 등 폭넓게 보장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NH농협생명이 'NH온라인생활레저보험'을 출시했다.

해마다 여름 휴가철에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책 점검은 필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여름철 3개월(6월~8월)에 물놀이로 인해 총 1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간 사고가 집중되어 전체 사망자의 75%(123명)로 나타났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휴가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NH농협생명의 NH온라인생활레저보험(무배당)은 저렴한 보험료로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생활 속 재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상품으로,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예를 들어, 휴가 중 계곡에서 미끄러진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치명적 재해 수술시 1회당 200만원의 치명

적재해수술자금, 재해골절치료급여금 10만원, 김치치료급여금 5만원 등 총 21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이 밖에도 ▲응급실내원진료비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자금 등 생활 속 재해사고에 대한 다양한 보장을 포함했다.

또한 ▲A형간염 ▲파상풍 ▲홍역 ▲쯔쯔가무시증 등 약관에서 지정한 특정법정감염병으로 진단시 1회당 20만원씩 보장한다.(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연간 1회 보험료 납부시 1년간 보장받는 상품으로 ▲40대 남성 1만7100원 ▲40대 여성 1만2000원(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년 중 가장 큰 설렘을 안고 떠나는 휴가철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한 보장을 챙겨주는 온라인보험도 휴가철 준비물로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소비자심리지수, 전월대비 하락

여행비·교육비는전월보다상승
의료·보건·문화비 등은 하락

전북소비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전월보다 하락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19년 7월 중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소비자의 소비자심리지수는 100.4로 전월(102.1)보다 1.7p 하락했다. 이는 전국 소비자심리지수의 1.6p 하락 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자출전망 등을 나타내는 전북지역 소비자 동향지수(CSD)를 보면, 소비자의 현재생활형편(92~93)은 전월보다 상승, 생활형편전망(97~98)은 전월보다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100~101)과 소비자출전망(109~108)도 전월보다 하락했다.

지출항목별로는 여행비 및 교육비는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나, 내구재, 의료비, 의료·보건비, 교양·오락·문화

비 등은 전월보다 하락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74~75)은 전월보다 상승, 향후경기전망(83~79)은 전월보다 하락했으며, 취업기회전망(85~85)은 전월과 동일, 금리수준전망(101~96)은 전월보다 하락했다. 현재가계저축(92~93)은 전월보다 상승, 가계저축전망(97~95), 현재가계부채(101~99) 및 가계부채전망(99~97)은 전월보다 하락했다. 물가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97~100) 및 임금수준전망(118~119)은 전월보다 상승, 물가수준전망(134~131)은 전월에 비해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소비자동향조사는 2019년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전라북도내 6개 시 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